

〈제 1 주제〉

민족이 산의 역사와 현황

이 광 규
(서울대 인류학)

제가 맡은 주제가 「민족이 산의 역사와 현황」입니다. 민족이 산에 관한 경의, 유형, 현황 이런 것은 김경동선생님께서 아주 정리를 잘 해 주셔서 저는 중복을 피하고 역사적인 맥락,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의 이 산이 어떠냐 하는 아주 좁은 의미의 민족이 산사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김선생님의 주제에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민족이 산을 소급시켜 이야기한다면 아마 삼국시대에까지 올라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문헌상으로 보더라도 삼국시대에 신라사람들이 당(唐)나라에 많이 건너가서 당(唐)나라에는 신라방(新羅坊)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LA(Los Angeles) 비슷한 모양이지요, 당나라에 LA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왕래를 하고 해서, 기록을 보면 삼국시대까지 올라 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것까지 올라 간다면은, 아마 아까 김선생님께서도 역사를 잠깐 언급하셨읍니다마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조선조(朝鮮朝)가 말기적인 현상을 일으키고 특히 국제열강이 우리 나라를 넘보기 시작하면서 민족의 이 산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때를 기준으로 하여 소급해 보니 기록상으로 1864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64년부터 6·25라는 시점까지 민족이 산의 역사로 보고 그것을 몇 시기로 나누어 보았읍니다.

대체적으로 시기(時期)를 나누다 보니 일곱 개의 시기로 나눌 수가 있었읍니다. 이게 조금 애매한 데도 있읍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보

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서 일곱 시기로 나누고 그 각 시기의 특색을 적어 보았습니다. 읽어 가면서, 또 조금 필요한 테는 보충을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남북의 분단과 한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자녀를, 부모를 잃어버렸고 형제가 헤어졌으며 부부가 떨어져서 가족의 이산이란 비극을 맞았으며, 이산된 가족을 찾겠다는 사람들이 10만명에 달하는 입장난 비극을 우리는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개인과 가족의 헤어짐이 자의가 아니라 격동하는 사회와 국가의 소용돌이에서 생겼다면 이러한 민족의 이산은 한일합병까지 소급할 것이며, 그 이전에 이루어진 연해주(沿海洲)와 하와이주의 계절이민과 노동이민에서 그 발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민족의 이산을 일곱 시기로 나누어 각기의 특징을 분석하고 오늘의 문제를 제조명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 1기는 1864년에서 1910년까지, 그러니까 한일합방 이전의 얘기입니다. 해외로 우리 민족이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1864년으로, 처음으로 60명의 노동자가 연해주방면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소련령 블라디보스톡 그 근방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당시 러시아 사람들이 밀림지대를 개척하면서 블라디보스톡 등의 세 항구를 건설하는 시기였습니다. 러시아인, 중국인, 한국인들이 연해주를 개간하면서 서로 협력도 하고 갈등도 하였습니다. 이때 우리 나라 사람들이 들어 갔을 때 소련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그 곳에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바로 들어오고 또 바로 이어서 중국사람들도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먼저 들어가서 우리 나라 힘이 강했더라면 아마 우리 나라 대한민국 영토가 될 뻔 했던 무주(無主)의 땅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한국에서 이주한 사람들은 매년 증가하여 1868년에는 165명, 1869년에는 766명, 그리고 1884년에는 1,164명으로 전부 5,447명이 되었읍니

〈표 1〉

1884년	5,447명
1892	12,564
1902	32,410
1908	45,397

다. 그 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1908년까지 이주한 인원을 보면, 한일합방 2년전까지의 이주인원은 대체로 〈표 1〉과 같습니다. 1908년에는 45,397명입니다. 이들을 계절출가이민(季節出嫁移民)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들이 영구적으로 이민한 것이 아니라 계절에 따라 농사를 지으러 가고 농한기에는 귀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일합방 8년후부터 남한지방의 경상도, 전라도에서 이민이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민들이 올라 가면서 쌀농사가 시작이 되고 거기에서 영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대체로 아편을 재배했는데 인도에서 아편재배하는 것과 경쟁을 하면서 굉장히 이익이 많았답니다. 이것은 가족이 몽땅 이민을 가는 것이 아니라 계절이민이라고 하듯이 여름에는 혼자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겨울에는 돌아오고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것이 이 시기의 특색이었습니다.

이곳 연해주에 있던 한국인이 1935년 소련의 강제이주정책에 의하여 중앙아시아의 카자크스탄지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련땅에 약 40만명의 한국 사람이 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연해주에 있던 사람들이 카자크스탄으로 이주를 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겠읍니다마는 소련에서도 아주 모범적인 소수민족집단으로서, 또 집단농장화에 아주 성공한 대표적인 소수민족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방향이 정반대되는 화와이로 향하겠읍니다. 1900년에 중요한 이민의 하나가 하와이로 가는 이민입니다. 하와이의 사탕재배농장의 노동자로서 제일 먼저 간 사람이 중국인들이고, 다음에 일본인 여기에 한국인들이 섞여서 갔던 것입니다. 1902년, 그러니까 인천(仁川)에서 이민 떠난 것이 처음이고, 그 후에 1905년까지 1년에 두 번 간 적도 있고—1905년이 가장 많이 갔던 해입니다—3년 사이에 7,296명이 이쪽으로 이주를 했읍니다. 이들은 영주할 목적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노동자로 갔다 오기로 했고, 이것을 이민조약에 의해 이주하였기 때문에 조약이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1905년 이후에는 갑자기 줄어듭니다. 그 줄어드는 이유는 일본사람들이 방해를 놓는 바람에, 이때는 아직도 한일합방 이전의 얘기입니다마는—일본 사람들이 대기 이주하게 되고 한국 사람들이 1905년까지는 굉장히 많이 가다가 그 이후에 줄어듭니다. 서울과 인천에 와서 노동자를 모집하는 독일계 청부업자가 있었읍니다. 그 사람을 일본사람들이 방해를 놓아서 가지 못하고 그 대신 일

본 사람들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제일 먼저는 잠시동안, 예컨대,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 가지고 돌아 올 결심을 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렇게 갔으나 마음대로 돌아 올 수 없게 되었는데, 특히 1910년 한일합방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영원히 돌아 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노동할 연령에 있던 젊은 분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혼자 살고 있다가 15년후에 여자들이 이쪽에 가게 되는데 이때 갈 때에는 아주 유명한 사진결혼이라는 것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5년전 젊었을 때 한국에서 가지고 간 사진을 보냈기 때문에 부인들이 그것을 보고 이 사람하고 나는 결혼하겠다고 갔습니다. 가 보았더니 할아버지들이 전부 나와서, 당신이 아니라고 돌아온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명이라고 그냥 그대로 사시고 계신 분들도 있고, 지금 하와이의 1세(一世)라고 하신 분들, 대개 70세, 80세들이 되시는 할머니들이 이때 소위 퍽쳐 브라이드(picture bride)로 간 분들입니다. 그래서 일화를 들으면 아주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20살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부부간으로, 그리고 부부로 살면서도 거실을 따로 따로 정하고 부부생활을 안 하신 분들도 계셨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돌아오신 분들도 계셨고, 비극의 하나라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2기가 1910년부터 192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일 합방에서 10년이라는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다 아시겠읍니다마는, 우리의 큰 사건인 3·1 운동이 1919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3·1 운동이 일어난 그 해까지 대체적으로 10년간의 경향이 되겠습니다.

한일합방으로 인하여 한국에서 일본에 왕래할 수 있는 길이 개방이 되었고 1915년부터 일본인에 의해 한국내에서의 토지조사사업이 한국의 농민들을 영세화하였으며, 1914년에 발발한 1차세계대전의 호경기가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노동자를 필요로 하게 되는 등 국내외의 사정은 크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부터의 유이민(流移民)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로 만주로 향하고 있었던 것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한일 합방전까지는 한국사람과 중국사람은 일본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사람들이 한국과 중국에서 근로

〈표 2〉

	滿 州	日 本	合 計
1912년	49,771명	644명	50,415명
1913	18,598	781	19,379
1914	10,631	224	10,855
1915	13,381	870	14,251
1916	13,493	2,179	15,672
1917	18,911	14,012	32,923
1918	36,627	17,910	54,538
1919	44,344	20,968	65,312
1920	22,200	27,497	49,687

자가 들어가는 것을 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일 합방으로 인해서 그 조약이 무효가 되고 실제로는 한국 사람이 자유로이 들어가게 됐고, 특히 1914년의 1차대전 호경기에는 일본에 군수산업이 일어나서 많은 노동자를 필요로 하여 한국에 와서 노동자를 뽑는데, 어떻게 뽑는고 하니 한국 사람 열 사람을 선정을 해서 금시계를 차고 양복을 입고 중절모를 쓰고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하여, 그게 그때 하나의 아이디얼 타입이었던 모양이지요, 너희들이 일본에 가서 1년만 노동하면 이렇게 된다 하고서 시장을 돌아 다녔다 합니다. 그것을 보고 탐이 나는 사람은 오너라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한국 사람을 뽑아 갔습니다. 그때는 지원이지요. 어디까지나 지원인데, 그렇게 하여 초기에는 굉장히 대우가 좋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농촌의 영세화로 인해서 못살게 되는 사람들이 차차 늘어 났는데, 이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지 않고 만주로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표 2〉를 보시면은 만주로 간 사람이 1912년에 49,771명, 거기에 비해서 일본에 간 사람이 644명,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갔지 일본으로는 안 갔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표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1916년, 1917년 넘어 오면서 차차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는 2만명선을 돌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인데, 1912년 이전에도 만주로 많이 갔습니다. 특히 간도(間島)지방으로는 연해주 못지 않게 간도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가 독립운동의 고장이 되고, 지금 현재도 한국 사람들 중 중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간도에 많이 살고 있는 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만주 특히 북간도를 중심한 동부에로의 이민이 많았고 한국에서의 생활고를 피하여 무주(無主)의 공지(空地)를 개척하러 나간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만주보다 노동의 기회가 많았고 기후와 생활조건이 유리하였으나 이때까지만 하여도 만주로 향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제 3기인 1920년부터는 한국 사람들의 이민의 방향이 만주에서 일본으로 전환을 하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많은 사람들 이 가게 됩니다. 1931년이 되면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일본의 정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주사변 이전까지를 잘라 보았습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이주의 방향이 만주에서 일본으로 향하여 일본에서 정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1923년에 발생한 관동대지진(關東大地震)이 있었고, 한국인에 대한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22년 이후 매년 2만여명이 새로이 일본에 이주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이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몇 년만 돈벌이를 하고 귀국하겠다는 노동이민이었고 독신자들이 많았으며, 특히 명절에는 집을 찾아 오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현황을 보면 마치 요즈음 우리들이 정월(正月)과 추석(秋夕)에 서울역이 메어지듯이 그때에는 현해탄(玄海灘)을 건너 오는 사람들이 메어져서 아주 대소동을 일으키는 현상들이 이때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많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관동대지진이라는게 아마 일본의 한일 관계사를 아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아시겠습니까는 1923년 9월 1일 아침 11시에 발생한 일본 역사상 최대의 지진이었습니다. 그래서 동경(東京)과 지금 요코하마 일대가 쑥발이 됐는데 그때 일본 사람들의 집이 대체적으로 목조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만 삼일간 불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교통이나 통신이 마비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 역사에 드문 대소동을 일으켰는데, 이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하면, 민심이 크게 동요되니까 그 민심을 수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한국 사람들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고 또 이 지진을 기회로 해서 한국 사람들이 우물에다가 독약을 넣고 강도질을 하고 나쁜 짓을 한다고 관(官)에서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루머가 전 동경 일대에 퍼지면서 일본 사람들이 극도로 홍분을 했고 민족 노이로제가 걸려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잡아 죽였습니다. 이때 죽은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의

통계에 의하면 6,000명이라고 하며, 한국 사람들의 통계에 의하면 2만명이라고 그립니다. 2만명을 그냥 고스란히 죽인게 아니고 아주 젖어 죽이고 한국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러한 비참한 학살을 했읍니다.

그래서 그때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옵니다. 잡힌 사람은 다 죽고 산 사람은 겨우겨우 해서 한국으로 일단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복구 사업에 다시 한국 사람을 썼읍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일본으로 가는데, 일본 사람의 역사에서 한일합방 이후에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은 이 관동대지진이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관동대지진 이후 노동자의 도일을 억제하면서 이때부터 가족의 이주를 장려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들을 들어오게 하고, 처자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래서 일본에 정착시키려고 하는 이런 정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 4기는 1932년에서부터 1937년이 되겠읍니다. 이것은 소위 만주사변에서부터 중일전쟁이 일어난 그 사이입니다. 몇 년 되지 않습니마는 이때에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 대한 정책이 조금 달랐기 때문에 우리 이민사로 보아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읍니다. 1931년 일본은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1932년에는 상해사건이라고 해서 침략을 감행하여 이른바 대륙정책을 시도합니다. 이 상해사건도 유명한 사건의 하나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관동대지진을 잊을 수가 없고, 중국 사람은 1932년의 상해침략을 결코 잊어 버릴 수가 없읍니다. 일본 사람이 상해(上海)에 가서 하루에 죽인 사람이 수십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일본의 대륙정책이 한국에 두 가지의 큰 영향을 주었으니, 하나는 이른바 북선경기(北鮮景氣)였고 다른 하나는 소위 이주정책(移住政策)입니다. 북선 경기란 북한지방을 대륙침략의 병참기지화 하려는 것으로서 철공업을 장려하고 각종 공장을 짓고 토목공사를 이루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을 투입하여 일본으로의 유이민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내에서 이동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만주국에 한국인을 투입하기 위해서 조만취식회사(朝滿拓殖會社)를 설립하였고, 1937년에서 1941년 사이에 만주로 이주한 사람이 10만명이 됩니다. 이것은 다 아시겠읍니마는, 만주에다가 만주국이라 하는 소위 괴뢰 나라를 하나 세워 놓고 그것을 통치하는 데에 한국 사람들을 앞잡이로 쓰

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반강제로 훈련을 시켜서 이주를 시켜 만주를 통치하는 데 수단으로 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만주로의 이주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유입하는 사람의 수는 1932년 이후에는 매년 7만명이 훨씬 상회하는 수였으며 1937년에는 73만 5천여명이 일본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절실한 것은 제5기가 되겠습니다. 1937년에서부터 1945년 까지, 그러니까 태평양전쟁, 2차대전의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1937년에 중일전쟁(中日戰爭)을 개시하였고 1941년에는 태평양전쟁을 개시하여 2차대전을 수행하면서 국가총동원령(國家總動員令)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서 한국인에 대해서는 세 가지 단계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첫째는 1939년에 소위 모집동원(募集動員) — 이것은 앞의 것 보다는 더 계획적입니다마는 역시 일본 사람으로서는 조금 유(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42년에 관알선조직동원(官斡旋組織動員), 그 다음에 1944년에 소위 국민징용령(國民徵用令)이 나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일본의 기업입니다. 미쓰비시, 미쓰이, 이런 대기업들이 조선총독부가 지정하는 곳에서, 예를 들면 군산(群山), 목포(木浦), 대구(大邱) 이런 곳에서 일정한 인원을 모집해 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번째 1942년에 나온 관알선이라는 것은 행정체계를 이용해서 군(郡)과 면(面)에 모집인원이 배당이 되어 모집하여 가는 것입니다. 예컨대 무슨 군 무슨 면에서 몇 명 차출을 하라, 이렇게 해서 배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배당된 인원을 차출해 가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소위 징용령이 나오면서부터 길을 가던 사람을 막잡거나 야간에 가택수색을 하여서 강제로 끌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당된 인원을 보충할 수가 없어서 그 집 모퉁이에다가 트럭을 세워놓고 장보러 가는 사람들을 무조건 위에다 싣습니다. 그래서 장보러 간다고 집을 나와 가지고 일본까지 강제로 끌려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집에 기별 할 도리도 없고, 또 밤에 자는데 갑자기 와서 수를 채우느라고 강제로 끌어가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때 자다가 말고 산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고, 손을 짜른 사람도 있고, 자기 다리를 짜르는 사람도 있고, 아마 나이 드신 여기에 앉아 계신 선생님들은 폼소 경험하신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때 우리 민족이 당했던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동원된 인원이 <표 3>에 나타나 있습니다.

〈표 3〉

1939년	38,700명
1940	54,944
1941	53,493
1942	112,007
1943	122,237
1944	280,303

1939년에 거의 4만명, 1942년에는 11만명이 넘고, 1944년에는 28만명이 동원된 것입니다. 이들은 주로 위험한 광산에서 일을 하였으나 광산 이외에도 토건업이라든가 항만건설 도로공사라든지 각종 공장 등에 고용됐으며 이들의 생활은 최저의 악조건에서 심한 노동에 시달리며, 특히 위험한 노동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만 못해서, 대부분의 광산에서는 많이 탈출을 합니다. 도망가다가 총에 맞아서 죽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고 요행히 탈출하면 다른 곳에 가서 노동을 하고 집으로 올 수는 없고, 이때의 우리 한민족의 쓰라림이라는 것은 아마 오늘의 이 산가족 못지 않는 쓰라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2차대전 중 일본의 군인으로 동원된 한국인이 22만 9천명이고, 군속—이 것도 일선에 나가서 총만 안쓸 뿐 아주 위험한 데까지 다 가는—으로 동원된 사람이 14만 5천여명이 되고, 특히 잊을 수 없는 것은 여자정신대(女子挺身隊)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간 사람들이 20만명이라고 합니다. 그 19세, 18세 되는 아주 젊은 처녀들이 제일 처음에는 방직공장에 취직시켜 준다고 예리고 가더니, 나중에는 아주 떳떳하게 국민징병령이 나오니까 아예 정신대라는 이름을 붙여 가면서 끌고 가서 최전방 일선에까지 배치를 시켰습니다. 요 며칠 전에 본 것입니다마는 필리핀에 갔더니 한국 할머니들이 몇 분 계시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분들이 정신대로 끌려갔던 할머니들입니다. 일선에서 군인들과 같이 죽은 사람도 있고 살아 남아서 그 몸으로 도저히 고향에 돌아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만명의 숫자는 밝히기도 꺼리고 본인들도 나타내기 싫어하는 숫자입니다. 참 눈물겨운 한이 맷힌 20만명입니다. 2차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는 기간, 군인, 군속들이 멀리 남태평양의 전선에서 전사를 하였고 일본에 대한 미군의 폭격이 격심해지면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또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소개를 하여 전한국과

일본은 소용돌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헤어지고 자녀가 부모와 떨어지는 등 대민족이동과 이산이 있는 와중에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는 순간 정확하게 얼마만한 숫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은 매일 소개를 하고 아주 대이동중에 갑자기 전결(戰結)시킨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6기는 1945년 해방이 되겠습니다. 해방에서 6·25까지 한 5년, 그런데 아주 키 포인트(key point)는 1945년의 해방이 되겠습니다. 해방이 되던 1945년 8월 15일 지금 대한민국 땅에는 인구가 1,600만명이 있었고 일본에 약 200만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8분의 1이 일본에 있었던 셈이 됩니다. 일본의 광산에서 사망한 사람의 수가 6만 4천여명, 군인, 군속으로 사망하고 행방불명이 15만명, 일반노무자 죽은 것까지 합하면 약 20만명이 2차대전중에 희생이 되었다고 추산을 합니다.

해방이 되는 날로부터 귀환업무가 끝나는 1946년 12월, 그러니까 약 1년 반 동안 일본에서 광장한 사람들이 약—140만명이—말하자면 거의 약 3분의 2가 돌아오고 60만명이 일본에 잔류하게 됩니다. 이들이 모두 귀환하지 못한 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한국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해방이 되면서 일본과 만주에서 귀국하는 사람이 수백만에 달하였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공산치하를 피하여 온 사람 등 이렇게 해서 남한은 큰 혼란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만주에서부터의 귀국도 일본에서부터의 귀국도 일단 중지를 하게 됩니다.

이때 대체적으로 나이 드신 분은 기억하시겠으니다마는, 여름 더운데 콜레라가 돌고, 식량난이 나고 하여 60만의 일본교포들이 와 가지고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도 어려서 경험을 했으니다마는 장터에 가면 지붕만 해 놓고 벽이 없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 장터가 꽉 차고 소외양간도 사람이 꽉 차고, 돼지우리에서 잠을 잤습니다. 돼지우리에다가 거리를 깔고 이슬을 피하는 방법으로 해서 자고, 국민학교에 들어간 분들은 아주 고급주택에 들어가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광장한 혼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제 7기, 아마 오늘의 이산가족의 키포인트가 되겠으니다마는 1950년에서 1953년까지의 3년간의 혼란입니다. 해방의 후유증이 겨우 가라앉을 만한 시기 한반도는 역사에 유래없는 전란에 휘말리고, 밀리고 미는 싸움에서 국

토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으며, 이에 따른 인명피해는 〈표 4〉와 같습니다.

〈표 4〉		
死	亡	244,663 名
虐	殺	128,936
負	傷	229,625
拉	致	84,532
不方不明		303,212
計		990,968

사망자 24 만, 이것은 북한까지 합하면 더 많은 숫자가 되겠으니다마는 어 하튼 살해된 사람, 부상, 납치, 행방불명 다 합해서 990,968 명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로 한국동란이 얼마나 엄청난 전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 100만명이 희생이 된 셈입니다.

그리고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밀리고 밀렸던 전선의 이동으로 어떤 마을 하나 피난을 가지 않은 마을이 없었고 집을 떠나지 않은 가족이 없었읍니다. 여기에서 특히 원산후퇴작전, 옹진 후퇴작전, 이런 아주 유명한 후퇴작전 통에 자기 형은 바로 배를 타고, 동생은 배를 못타고 다음 배로 가는, 마치 월남이 망하는 마지막 시기에 비행기에 타지 못하고 매달려 가지고 죽는 이런 꼴을 봤으니다마는, 아마 원산후퇴작전이 그것보다 더 비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야 되는데 글을 쓰다가 보니까 너무 간단한 것이 된 것 같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식민통치를 겪고 우리 나라를 잃었던 것이 민족의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동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많은 인명의 피해를 보았고 형제와 가족의 이산이란 쓰라린 경험을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하리만치 우리 민족이 지주를 받아야 하고, 그것을 바로 이 시기에 겪어야 하리만치 오늘을 사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고통과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한 조상으로 민족사에 기록되기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여야 할 것인지를 이제나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1 주제 토론〉

사회 : 강 우철(이화여대 역사학)

토론 : 김 광억(서울대 인류학)

윤 종주(서울여대 사회학)

신 용하(서울대 사회사)

사회

이광규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다 역사시간에 배운 이야기인데, 역사 선생님이 아니고 인류학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으면은 이렇게 다른 일면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세미나에서 여러 가지 민족이산의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윤종주 선생님은 인구학회 회장이시니까 인구이동 중의 한 분야, 여기에 정치학하시는 분, 사회학하시는 분, 또 신용하 선생님 같이 특히 한국역사와 사회학의 결합·만남을 주로 연구하시는 선생님, 사회사를 연구하시는 선생님, 또 김광억 선생님처럼 외국에 있는 인구이동관계를 연구하시는 선생님, 다각적인 각도에서, 또 내일은 신문학에 이르기까지 여러 학문이 한 가지 문제를 얘기한다는 것 근래 학문동향의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역사적인 고찰을 통계를 것들여서 이광규 선생님이 해 주셨고 다음은 순서적으로 김광억 선생님이 외국에 있어서의 상황 문제, 또 윤종주 선생님이 인구학을 하시니까 주로 6·25를 중심으로 한 국내의 이산 이동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하 선생님께서 규장각의 책임자답게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조명을 해 주시는 이런 방향으로 코멘트를 약 10분간 해 주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과 주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광억 선생님 부탁합니다.

김 광억

이광규 교수님의 발표에서는 이주가족(移住家族) 내지는 해외에 나가서 이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집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보충을 일단 한 후에 제 나름대로 몇 마디 말씀을 덧붙일까 합니다.

지금 주로 보면 일본 재일교포에 많은 치중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중

공에 약 168만명이나 되는 숫자가 있읍니다. 그리고 소련만 하더라도 사할린과 중앙아시아 지역에 35만명이나 있읍니다. 그 외에도 미국이라든가 하와이 기타 세계 곳곳에 한국 사람들이 가 있지 않은 곳이 없을 줄 압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은 미국이나 이런 데에는 차발적으로 그리고 더 잘 살기 위해서 간 사람들로서 한국에 오고 싶어 하기보다는 거기서 더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니까 우리 이산가족찾기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별개로 쳐서 생각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교포들 또 우리 국내로 보면 북한에서 넘어 온 월남가족들을 전부 보면 아마 이주배경이라든가 과정, 그리고 정착과정 등을 우리가 좀더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아까 김경동 교수께서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바를 지적하실 때 이미 언급이 되었읍니다마는, 그리고 제목이 원래 “역사와 현황”인데 사실 “현황”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주해서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위가 어떠하며, 그리고 한국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정체성이라든가 전통적인 문화를 어떤 식으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가 하는 점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국이라든가 고향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 것인가, 과연 오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거기서 잘 정착해서 살기를 원하는가 이런 점도 생각해 보아야 할 줄 압니다.

우선 중공에 가 있는 사람들의 이주배경 같은 것을 보면 일본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중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일제식민지 통치를 받기 이전에 이주하기 시작하였는데 지금 이광규 선생님은 간도지방에 많이 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사실은 흑룡강성(黑龍江省), 요녕성(遼寧省) 이쪽으로 훨씬 많이 가 있읍니다.

출신배경을 보면 간도지방 사람들은 함경도, 두만강을 넘어서 오래 전부터 정착을 해 간 사람들이고, 남한에서 일제 이후에 농민층이 몰락되고 아주 소규모 상공업에 종사하던 사람들마저 다 분해되어 결국 남부여대 하여서 만주로 일단 이주한 사람들이 오늘날 요녕성, 흑룡강성 일대에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가 KBS를 통해서 방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편지가 오고 가는 것도 물론 북간도지방에서, 소위 우리가 연변이라고 합니다마는, 연변자치주에서 넘어 오는 것도 있지마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흑룡강성 오산현, 반석현 이런 식으로 해서 요녕성, 섬양 이쪽에서 많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중국으로 간 사람들은 일차적으로 생활고 때문에 갔는데 이 생활고는 물론 국내사정도 있겠읍니다마는 일본의 착취라든가, 이런 외세에 의한 착취나 수탈로 인해서 생긴 것이 더 많겠습니다. 어쨌던 생활고로 인해서 간 것과 더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중국으로 간 사람들 중에 상당부분이 항일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비해서 일본에 간 사람들은 물론 첫째로는 생활고 때문에 둘째로는, 이광규 선생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강제징용을 당해서 간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물론 개인의 어떤 성취,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많겠지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읍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산가족으로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로 간 사람들은 1800년대 후반부터 연해주일대에 많이 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적은 숫자가 나와 있는데 1937년에 「하바로프스크」에서 중앙아시아로, 「타쉬켄트」로, 「우즈벡」으로 강제로 퇴거 당했습니다. 하루 아침에 그때 20만명이 강제로 퇴거 당해서 그대로 내버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차에 실어서 황야에 아무렇게나 20만명을 내던지고 갔습니다. 이 20만이라는 숫자는 아직도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아직까지도 비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간접적으로 나온 자료들을 분석해서 20만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월남가족을 보면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하나는 해방 직후 북쪽이 공산화되면서 결국 이념이라든가 정치적 이유로서 월남한 사람들과, 그 다음에 6·25 이후 1·4 후퇴때부터 내려온 사람들,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합니다. 첫번째 경우 이념적, 정치적인 어떤 이유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대개 공산치하에서 살 수 없는 성분을 가진 사람들, 즉 재산을 가지고 있다든가 교육을 많이 받았다면 대개 이런 사람들이겠고, 1·4 후퇴 이후에 내려온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적 자원을 많이 갖지 않고 무조건 휙쓸려서

내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월남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남한에서 적응하는 그 상황이나 결과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념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여기서 생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가지고, 즉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온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남한에서 적응하는 데도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주과정에서도, 같은 동양이지마는 중국만 하더라도 아주 상당히 자의로 사람들이 간 것이 많고 또 그쪽에서 개척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비해서 일본에는 타의에 의해서 강제로 갔고 또 일본이라는 사회가 민주처럼 누구든지 들어가서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공개된 지역이 아니고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짜여져 있는 사회 속에 들어가야 하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착과정에서도 보면 중공쪽으로 간 사람들은 자기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살려 나간 방향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아이덴티티를 죽여야 하지요. 자기가 한국사람 또는 조선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면 그만큼 제약이 오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화 할수록 시마이브(survive)하는 데 훨씬 좋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면에 있어서도 러시아나 중공같은 데에서는 상당한 사회적인 진출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공같은 경우에서 연변자치주는 아예 소수민족으로서 하나의 자치주를 가지고 한국말로 모든 것을 다하고 학교도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다 한국인 학교가 있읍니다. 그리고 중공의 중요한 기관에도 한국인들이 많이 진출해서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한 층에 속합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들이 흔히 듣는 학자들의 이름 중에는 한국인 출신이 많이 있읍니다. 그리고 그 지역 일대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있읍니다. 일본에 있어서는 물론 성공한 경우도 있지만 사회적 진출이라는 것이 굉장히 막혀 있고 경제적으로도 별로 사회적으로 존경할 수 없는 그런 분야에 종사하므로써 부를 획득할 수 있는 이런 분야로 몰려 있는 셈이 되겠지요.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고향에 대한 가치나 태도도 달라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보면, 중공이나 러시아로 간 사람들은 아주 전통적인 문화 그리고

민족적인 「아이덴티티」같은 것을 상당히 지키고 있는데 비해서 일본이나 미국으로 간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측면이 상당히 약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중공이나 일본은 같은 유교문화 내지 가족주의라는 것이 바탕이 되어 있는 이런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중공에서는 그것이 아주 긍정적인 측면에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일본에서는 같은 가족주의라도 일본의 가족주의와 한국의 가족주의는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우리하고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나 미국도 우리하고는 다른 문화인데 거기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적인 성격이 그 곳에 이주해 간 사람들의 아이덴티티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점에 착안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덴티티의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적응하느냐, 그리고 고향 내지는 고국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도 사실은 결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중앙아시아나 사할린은 아주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한국말로—그 사람들은 고려(高麗) 말이라고 그립니다, ‘조선’이라는 말도 안쓰고 ‘한국’이라는 말도 안쓰는데 고려말로—신문도 내고 고려극장, 고려가무단, 고려문학,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중공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하고는 많은 접촉이 이제는 되어 있지만, 어쨌든 모국하고 사실은 상당히 단절된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더 많은 민족의 어떤 아이덴티티 같은 것들을 고수하려고 노력하고, 오히려 왕래가 많은 미국이라든가 일본에서는 그것이 적다는 것은 상당히 흥미있는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을 연구할 때는 이주지역의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도 함께 고려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만 어떻게 적응하느냐, 우리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만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그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 일본, 중공 여기의 소수민족정책 또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에 따라서 아주 달라진다고 봅니다. 아까 이광규 선생님 표에 보면 일본보다 만주로 많이 간 그 이유가 물론 여러가지 정치적인, 정책적인 측면도 있겠으니다마는 또 하나는, 대부분 만주로 간 사람들이 농민들이었다는 것, 즉 여기서 토지를 잃어버리고 빼앗긴 그런 농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서 다른 것 할 수 없지요. 장사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나 기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결국 농사를 지어서 살 수 있는 곳은 광활한 만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상당히 개방해서 얼마든지 들어와서 농토를 갖고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이주를 할 때에는 가만히 있다가 비행기표 사서 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요. 결국은 서로 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줄이라는 것, 네트워크」(network)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개 만주지역으로 간 것은 대개 만주지역에 살고 있는 중국사람들과 의형제를 맺고, 또 한 사람 다시 자기 고향 친척, 친구 이렇게 해서 연줄연줄로 해서 갑니다. 그래서 대개 만주지역으로 가면 한집 안 전체가 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집안은 아니지만 가족단위로 이렇게 간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훨씬 더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일본같은 데는 그런 네트워크 없이, 아까 발표에서도 아셨겠지만 그냥 관(官)에서 강제로 한 명 씩 이렇게 데려갔기 때문에 거기서 정착하는 데 아무런 연줄이라는 것이 없지요.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고립되고 거기에서 정착을 하거나 생존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고통을 겪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주로 가는 것이 훨씬 많았고, 또 하나는 만주로 간 사람 중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는 그 외에도 항일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소위 지도자적인 그런 계층에 속한 사람들도 많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결합을 해서 한국사회가 그대로 인식되는 그런 데에 공연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많겠습니다만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이주과정에서 1차 이주, 2차이주 이런 것이 있습니다. 1차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왔다든가 하는 것이고, 2차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와서 다시 미국으로 갔다든가, 한국에서 만주로 갔다가 다시 중국본토나 더 위로 올라갔다든가, 한국에서 연해주로 갔다가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갔다든가, 또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다시 사할린으로 갔다든가 하는 것 등인데 이런 것에서 겪는 여러가지 변화가 많을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재회가족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 재회시에 어떤 컬처Shock(culture shock)라는 것이 아주 기구한 것이 많지요. 부인이 즉

은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만나고 보니 부인이 살아 있어 전부인, 현재 부인 이 있다든가. 여자도 마찬가지지요—물론 수절한 여자가 더 많습니다마는. 역시 그런 경우 자식들이 같은 가족이 되었는데 보면 이복형제가 될 수 밖에 없지요. 거기서 어떤 적응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비단 월남가족뿐 아니고 중공에 살다가 가끔 방문을 하는 이런 가족 사이에도 일어나는 것으로 봅니다.

우선 여기서 일단 얘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회

시간이 아쉽습니다마는 다음 윤선생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 종주

이선생님의 논문을 어제 늦게 받아서 그전에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본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에게 맡겨진 토론내용이 이 산가족의 지역적 분포라고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산가족을 규정하는 자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김경동 교수님이 문제제기에서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이 산가족이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시기는 어느 시기부터냐, 친족범위를 어떻게 하느냐, 또 지역은 어디까지 포함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가령 이 산가족의 문제를 학문적으로 접근한다 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디파인(define)이 없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제 발표내용을 제가 쭉 보니까 19세기 말부터 우리나라 이민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맨 마지막 귀절에 와 가지고 이 산가족과 조금 더 깊이 관련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이 산가족에 관하여 조금 더 과학적인 접근을 한다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역시 이 산가족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어디서 얻느냐 하는 문제일 것 같읍니다. 우리가 좀 더 정확하고 과학적인 자료 없이는 이러한 문제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가령 지금 KBS가 이 산가족의 결합을 위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10만명 경도의 내용을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한 입력 속에 어떠한 변수들이 들어있느냐, 또 어느 정도 그것을 가동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겠습니까마는, 그것이 하나의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이북 5도청에 있는 자료가 이러한 이 산가족을 밝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만일 내가 이산가족이라고 하면 모든 국민이 센서스 같은 것을 통해서 신고를 한다면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겠으니다마는 지금 당장 연구를 한다 할 때 우선 자료의 미비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개념규정이 막연한 데에서 이산가족과 관련될 수 있는 내용들로 일제시대 데이터를, 이미 발표자께서 말씀하셨으니다마는, 제가 저 나름대로 훑어보니까 해방 직전에 우리나라 인구가 남북을 통해서 2,500만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남한인구가 한 1,600만이었고, 우리나라에 없는 재만 한국인이 151만 정도 되었습니다. 중국에 약 9만, 일본에 210만 정도 해서 전부 기타까지 합치면 400만 정도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가운데 해방을 통해서 만주에서 21만이 들어왔고 중국에서는 4만, 일본에서는 이 자료, 국제조사에 의하면 94만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제일 많기로는 보사부자료에 의하면 114만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약 250만 정도 되리라고 보겠고 이것이 해방 당시의 숫자니까 그동안 이 사람들이 늘었다고 할 때 지금 현재 한 500만 정도 우리나라 거래들이 남북한외의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간단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산가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있는 대상으로는 해방후에 월북한 사람들이 50만 정도로 추산이 되고 6·25 동란시 100만 정도 된다고 했으니다마는 죽은 사람을 빼고 나면 57만 정도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수가 구체적인 얘기가 될 것 같지 않아서 이산가족과 관련되는 간접적인 자료가 없을까 생각하던 끝에 60년 센서스 가운데서 출생지 항목을 찾았습니다. 이 조사항목을 보니까 당시 남한에 살면서도 북한에서 출생한 사람이 1960년 센서스에 64만 8,000명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전체인구의 불과 2.5%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마는 지역별로는 황해도출신이 22만, 평북이 11만, 평남이 14만, 함북이 4만, 함남이 13만, 도합 64만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지역적인 분포로서는, 도시지역에 살고 있느냐 농촌지역에 살고 있느냐 하는 구성비를 보니까 대개 월남해 가지고 71% 정도 즉 7할 이상

이 도시에 살고 있고 농촌거주자들은 30% 정도 밖에 안되며, 그 다음에 이러한 64만을 성별로 보더라도 남자가 68%, 여자가 32% 밖에 안된다는 것에서 월남할 때 이동성향이 여자보다는 남자가 많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연령별로 보니까 낮은 연령층에서부터 위로 갈수록 구성비가 적게 되어있읍니다마는 60년 센서스에서 가장 많은 연령층이 25세에서 44세까지로 그 비율이 전체 60%를 차지하고 있어서, 특히 60년 당시에 35세에서 44세니까 우리가 6·25를 생각한다면 당시 나이가 20대에서 30대에 속하는 사람들의 구성비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출생지가 이북인 사람들의 시도별 거주지 분포를 보면 64만 가운데 거의 46%, 즉 거의 반 정도가 서울에서 살고 있고 경기도에 20%가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도권에 이북출신은 거의 65% 정도가 살고 있고 나머지 비율이 많은데는 경남인데 이 당시에는 부산이 별도 직할시로 분할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경남이 15% 정도, 강원도는 접경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겠읍니다마는 9% 정도입니다.

그래서 60년 센서스 데이터만 가지고는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아서 1940년 대 센서스 데이터와 다시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비교를 해 보니까 1940년 당시 남한지역에 북한지역 사람들이 약 10만 살고 있었는데 이것은 당시 인구 1,550만에 비했을 때 불과 0.6% 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면 해방후 또는 6·25를 통해서 당시 많은 이북출신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일제시 1940년에 불과 0.6% 밖에 안되었던 남한에 있어서의 이북사람들이 60년 센서스에서는 2.6%로 거의 네 배 정도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40년 센서스 당시도 서울이 경기도 안에 들어가 있었읍니다마는 이북출신들 가운데 경기도가 60%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가 31%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동포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수가 약 500만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해방 후에는 이북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은 50만 정도 되고 6·25를 통해서 남북되었다든가 실종된 사람이 57만 정도 되고 60년 센서스에서 40년 센서스를 마이너스해 보니까 역시 이산가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인구가 54만 정도 되고 이것을 5인가구로 생각한다

면 110만 정도의 가구가 이산가족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지난번 KBS에서 10만이상 가족을 대상으로 했다면 그중에 10분의 1정도로만 끝낸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고 월남인구의 구성비는 역시 황해도가 35%, 평안도가 39%, 함경도가 26%로서 지리적인 것과도 약간 관련이 있는 것 같으며, 월남인구의 대부분은 6·25 당시 20대에서 30대 사이라는 것과 이들의 현재 국내에서의 거주분포를 보면 서울에 43%, 경기 20%, 경남 12%, 강원 9% 정도가 지배적인 분포인 동시에 역시 도시 거주적인 성향이 농촌보다 높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앞으로 이산가족을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사회

윤선생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신용하선생님 마무리를 지어 주십시오
신용하

제가 맡은 부분이 주로 민족이산의 역사인데 이광규교수님께서 이것을 잘 정리를 해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그러한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민족이산 또는 이산과제의 문제는 크게 나누어서 두 단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광규교수님께서도 자세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첫째는 일제의 식민지정책에 의한 민족이산 또는 이산과제문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이민에 의해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는 무슨 보람 있고 희망에 넘친 그러한 이민이 아니라 일제의 식민지정책에 의해서 토지를 잃은 농민들이 극단적인 빈곤을 못 견뎌서 만주로 이주하는 형태라든가, 또는 일제가 1931년에 만주이민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는 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약 50만명의 한국인을 만주에 이주시켜서 미작농업을 개척해서 일본의 대륙침략의 군수미공급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 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만주이민조차도 자발성보다는 일제의 식민지정책에 의한 이민이 대부분이었고 아주 비참한 이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의 이민은 일제의 식민정책에 의해서 저렴한 노동임금의 일환인 한국인의 고용, 그리고 전쟁이 가까와 온 시기에는 강제징용, 강제연행

등에 의한 한국인 노동력의 강제동원 이런 일로 특징이 지워집니다.

이러한 역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 나라를 식민지상태 또는 종속국상태에 두어서는 언제나 백성이 이렇게 불행해진다 하는 것이며 이것이 역사가 가르쳐 주는 의미 내지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의 식민정책과 그 후 8·15 해방 그러한 과정에서 생긴 모든 불행한 민족이 산, 이 산가족의 문제는 일제의 식민지정책에 말미암은 것이고 우리 내부의 문제에서 보면 자주독립국가를 만들어서 지키지 못한 결과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르쳐 주는 바는 언제 어떠한 경우에도 자주 부강한 독립국가를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뼈아픈 역사적 교훈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번째의 민족이 산 내지 이 산가족의 문제는 6·25 동란이라는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말미암은 민족이 산입니다. 이것은 KBS에서 방영을 해서 아주 빼저리게 실감을 했고 전국민이 울고 그랬으니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는데 6·25 동란으로 인한 이 산가족은 10만명이 신청을 했다는 등 통계도 나오고 합니다마는 실제로는 1,000만 이 산가족이라고 하는 테에 실감이 있다고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0년이 지나는 동안에 대부분 다시 만났고 또 상처를 많이 회복을 하고 많이 아물어서 그렇지 실제로 전쟁 당시에 3,000만 국민들이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고 잠깐이라도 이산되거나 않은 경험을 가진 가족이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서 볼 때 동족상잔의 전쟁이 가져다 주는 참혹한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역사가 그 의미를 잘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KBS의 이 산가족찾기 방영을 보면서 어떠한 소감을 느꼈는가 하면, 어떠한 아름다운 명분이라 할지라도 또는 우리 민족의 현재 최대의 과제인 민족통일도 반드시 평화스러운 방법으로 평화적 통일을 해야 한다는 점과, 위정자들이 어떠한 명분을 내세우며 무력통일을 하려고 시도를 하거나 또는 다시 한번 동족상잔의 전쟁을 하려고 하는 시도는 위정자들이 도저히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맨 밑바닥에 있는 민중차원에서 엄청난 비극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점을 아주 이번에 생생하게 제현해 주고 가르쳐 주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산가족찾기 운동 또는 KBS의 방영은 앞으로의 우리 나라 문제에 있어서,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위정자들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적어도 민중수

준에서 본다면 민중은 절대적으로 평화스러운 방법에 의해서 평화통일 해야지 그 외의 것은 바라지 않는다는 것, 그 외의 것은 균원적인 비극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실감있게 교훈적으로 가르쳐 주었다고 느꼈습니다.

일제 식민통치가 36년간이고 전쟁은 3년간에 불과했으니다마는 이산가족의 문제나 희생자를 보면 일제 36년의 총 식민지 통치기간 전부에 걸친 희생자와 이산가족보다도 한국전쟁의 결과로 말미암은 희생자와 이산가족의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은 동족상잔의 전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아주 극악한 악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학술적인 발표와 정확한 설명은 이광규교수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 소감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감사합니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약 10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순서없이, 원하시는 분은 거수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가능하면 ‘누구누구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 학영

전대 행정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이학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조사한 것은 별로 없읍니다. 교수님이 조사하신 데에 비하면 빈약한 소견인 것 같지만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김경동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민족이 산의 현실과 과제’에서 개념문제와 관련 분류를 하실 때 이산가족의 한 명이 헤어졌느냐 아니면 남쪽으로 오신 분이 많고 그 다음에 북쪽에 계신 분이 적었을 때 그것을 이산가족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산가족의 개념을 먼저 확실히 안 하시고 넘어 가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모든 범위를 다 포함시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효과면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하셨는데요, 후진국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정치인들이 말하는 민족형성이라는 대전제하에서 현재 제5공화국이지마는, 민족융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산가족을 찾음으로써 민족의 융합보다는 이질화현상이 나타난다면 우리 국가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던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발표하신 이광규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민족이 산이라고 그랬는데요, 역사적 현황을 봤을 때에는 민족이 산보다는 민족이 주, 그러니까 의식적인 이주에 의한 것 까지도 민족이 산이라는 범위 안에 집어 넣는데요, 민족이 산하고 민족이 주하고의 개념 차이를 확실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회

고맙습니다. 김경동 선생님의 답변과 설명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결론이 곧 그 개념의 목적이 될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우리 팀에 질문을 해주신 테에 대해서 간단히 이광규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이 광규

지금까지 쭉 제가 말씀 올린게 이민사(移民史)지 그것이 이산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김선생님이 아까 정의 중에 이산이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고 또 강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있다 하셨는데 특히 우리들이 취급하려고 하는 것은 강제적인 것에다 촛점을 두고 있읍니다. 이번 주제발표도 그렇고, 김선생님도 그렇고 아까 김광역선생님도 보충설명을 하시면서 그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강제에 의해서 헤어졌다라고 봤을 때에 앞에 일본이나 만주로 간 사람들은 사실은 이주라고 해야 한다는 말인데... 물론 평화적으로 갔읍니다마는 그것도 아주 넓은 의미로 잡아 보면 예컨대 자기가 돈을 벌어 가지고 자기 집에 보태려고 혼자 나가서 일을 하려 나간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이산이라는 아주 넓은 의미에 넣으면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산이라는 것을 좁게 하지를 않고 아주 넓은 의미로 잡아 봤읍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

또 다른 질문?

김 경철

고려대학교 1학년 김경천이라고 합니다. 김광역 교수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상대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외국에 나가서 우리 민족과 화합하기 위해서

또 거기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 어떠한 조직체를 가지고 또는 어떠한 민단조직을 가지고 행동했는지 그 활동상황에 대해서 짧깐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광억

그것은 아마 그리 한 활동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이 시간에 다 답변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공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런 것이 아주 직후부터,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국내에서부터 항일 독립운동가들은 이런 분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여러 가지 학교를 세우고 어떤 조직적인 항일운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예 활동같은 것도 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본토에서도 그랬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일이 말씀을 여기서 드리지 않아도 많을 것 같습니다. 또 하와이만 하더라도, 물론 그때 사탕수수 재배농장에 아주 형편없이 싸고 저렴한, 노예나 다름없는 그런 지위로서 갔지마는 곧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는 자금도 대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또 한 분 기회가 있습니다.

조 대한

성균관대학교 2학년 조대한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광규 교수님께서 「민족 이산의 역사와 현황」이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70년대 이후 제4공화국의 안보논리를 내세울 때 이산가족을 찾기 위한 캐치프레이즈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7단계로 나누어서 가지고 말씀을 하실 때 19세기 말에서 20세기까지에 걸쳐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근대한국의 수난사로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민족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기에 민족이산에 대해서 그 중요성이 절실히 것을 강조하고 또 학문적인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아니되는지 개인적인 소견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광규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특히 외국 사람을 만나면 꼭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데요. 왜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오늘에 그 문제가 나오느냐, 10년 전에 나오든지 15년전에 나오든지 그리지 왜 하필 이때 그 문제가 나왔느냐고, 서양 사람들은 꼭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다른 분이 질문을 받으셔도 마찬가지겠읍니다마는 저도 답변할 도리가 없어요. 아마 매스콤의 기계가 발달해서 이만한 단계에 온 것이 모멘트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아주 궁색한 답변 밖에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활의 여유가 있게 됐다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매스콤이, 내일 발표될 나오겠읍니다마는, 이게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돌이켜 보게 되고… 그런데 사실은 60년대 남북적십자회담 얘기가 나왔을 때 이 얘기가 나왔었읍니다. 이산가족이라는 말을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꾸 편지 보낼테니 받아다오, 이것은 여기 월남한 사람들이 이북에 있는 자기 부모가 최소한도 살아 계시는가를 알기 위해서 편지를 보낼테니까……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정치적으로 되지 못했읍니다. 이것은 의식수준이나 경제적인 수준 특히 매스콤의 기계가 이만큼 발달함으로써 이런 모임을, 만남을 갖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답변은 내일 마지막 토론에서 나올 것 같읍니다. 제 개인 소감은 그렇습니다.

사회

고맙습니다. 딱 1분 째에 주어진 시간이 남아 있읍니다. 끝까지 동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분과에서는 주제발표에서부터 토론자까지 여러분이 계십니다. 전공도 따로 따로 되어 있어 사회인류학, 가족을 배경으로 한 인류학, 그리고 문화인류학, 사회사, 인구학, 역사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전적으로 배경이 다릅니다.

주제발표에서는 주로 역사적으로 훑어주셨읍니다. 김광역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인류학적인 것으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모두들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말씀이 강하게 풍겨 있읍니다.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뿐 아니라 바깥으로도 눈을 돌리자는 거지요. 두번째 윤선생님은 인구통계를 하신분답게—인구통계라는 것은 사실은, 죄송합니다마는, 어느 때는 불확실하기 짝이 없고 어떤 때는 어렵기가 이루 한이 없고 그래서 우리도 인구

센서스 앙케이트를 친절히 써주셔야 하는 이유가 정확한 우리들을 알기 위해서 협력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읍니다마는—여기에서 100만 가족에 10만 정도를 덇치한다는 데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끝으로 신용하신 생님은, 이것이 가진 의미가 식민적인 정치적 종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3년동안의 전쟁의 피해가 36년동안의 강제역압보다도 더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빠져리게 느끼면서 통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디까지나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하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첨가하는 것을 용서하신다면, 텔레비전을 보고 우리가 느끼는 그것 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공부하는 사람에게 진지한, 어느 분야에서나 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군민회, 군민회 해서 다 만난 줄 알고 KBS에서 몇 분 남는 분을 찾아 보자 하고 시작했던 것인데 이렇게 커지고 보니까 그러면 있는 힘을 다 하고, 기계를 또 사쓰고 그리고 있는 힘을 다 해서 뒤쳐 보니까 이렇게 커지더라, 이러한 얘기도 겸해서 아시고 가셨으면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분, 발표해 주신 분 모두 감사합니다.